



새봄맞이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화순군은 쾌적한 문화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운주사 등 관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는 주변 쓰레기 줍기와 오물제거, 배수로 정비, 화장실 청소 등 본격적인 문화재 관람활동이 시작되는 계절에 맞춰 진행했다. <화순군 제공>

장흥 방촌마을 위성렬씨 유물 107점 기탁

郡, 유물전시관에… 연구·학술자료로 사용

장흥군 방촌유물관 명예관장인 위성렬씨가 최근 가내에 소장한 귀중한 유물 107점을 군에 기탁했다. 방촌마을은 1600년대 초반 위씨 일가들이 당동에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현재도 1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장흥위씨 집성촌으로 장흥의 대표적인 양반마을이다. 이번 기탁한 대표적인 유물로는 순정4년 위덕화후증 교지등 교지류 52점, 분재기 8점, 호성원종 공신록, 죽암거사 영정, 지제지 필사본 등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기탁 받은



유물을 방촌유물 전시관에 전시, 연구 및 학술자료로 귀중히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09년 5월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전승, 전시·조사 연구를 위해 방촌유물 전시관을 개관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성 주민들 “CCTV야 고마워”

교통사고 빠른 대처·청소년 탈선 예방 등

24시간 모니터링… ‘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지난 2월 문을 연 ‘장성군 CCTV 통합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가 지역 사회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장성을 장성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관제센터와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관제센터는 지난 22일 장성대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차로를 교행하던 차량 2대가 충돌한 후 차량 1대가 가드레일을 넘어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했다. CCTV를 모니터링하던 관제 요원

은 즉시 경찰관에게 사고 위치 사항을 전파하고, 부상자 후송을 위해 119 구급대에 통보하는 등 군과 장성경찰서의 유기적인 대처로 사망사고를 예방했다. 이 밖에도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 화면에는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켜트뿔 되고 있다. 늦은 밤 학교 주변을 서성대며 술을 마시는 가출 청소년을 비롯해 만취해 길거리에서 잠이 든 취객,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탈선행위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 등이 모니터링 된다. 관제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상황을 관계 기관에 알려 가출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구조의 손길을 신속히 전하고 있다. 관제센터는 방범·어린이 보호구역·재해예방·산불감시·학교내 안전 등 목적별방분산 운영하던 270대의 CCTV를 통합한 관제센터와 재난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관을 포함한 20여명의 관제요원들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재난, 산불감시까지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관내 지역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모니터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혼자 고민 말고 도움 요청하세요

영암교육청 Wee센터, 길거리 상담 눈길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장동연) Wee센터는 최근 영암중학교와 삼호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길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길거리 상담은 평소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심리적·정서적 고민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담을 할 수 없었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길거리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교우관계,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 학생들의 고민을 다소 해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영암Wee센터는 홍보용 스티커 및 포스터, 불렌 등을 제작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접 상담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영암Wee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길거리 상담 결과를 종합해 학생·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남평 공공도서관 ‘찾아가는 토요강좌’

5일제 수업에 맞춰… 6월 23일까지 12개 강좌 운영

남평 공공도서관(관장 정선화)은 2012년 봄학기 평생교육강좌로 학생들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찾아가는 토요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학부모 및 일반대상 4개 강좌 ▲학생대상 6개 강좌 ▲소의 계층을 위한 2개 강좌로 운영된다. 특히 사전 조사를 통해 각 기관 요구를 사전에 파악해 교육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강좌를 맞춤형으로 개설했다. 남평 공공도서관은 지역 아동센터

3곳을 토요일에 방문해 배려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 지도교실과 어린이 토일공예 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립 나주병원 ‘느티나무 학교’의 학생 환우들을 대상으로 ‘독서 후~’ 강좌를 열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남평 공공도서관은 원거리 지역 13개 기관을 찾아가는 ‘순회 문고’를 운영,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영산강유역 ‘대형옹관’ 제작기법 비밀 찾았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운반방법도 밝혀내

영산강 유역 고분에서 발견되는 대형 옹관(甕棺) 제작 기법이 밝혀졌다. 문화재청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대형 옹관 제작 고대기술 복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형옹관 제작기법을 연구했다. 연구팀은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한 옹관에 대해 3차원 촬영, X-선과 CT 촬영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했다.

옹관의 테쌓기 방식, 손 누름 흔적, 바닥에 생긴 둥근 구멍 등을 관찰해 제작 기법을 비롯해 관을 작업장에서 가마로 운반한 방법을 알아냈다. 또 나주 오랑동 옹관 가마의 발굴 결과와 성분분석 등을 토대로 옹관묘에서 출토된 실제 옹관을 같은 크기와 형태로 재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옹관에 남아 있는 당시 용

관 제작 기술의 흔적들을 찾아냈다. 연구소측은 “지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통적인 방식의 가마를 만들고, 다양한 온도에서 옹관을 구워 색상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등 대형 옹관의 제작 기술을 최대한 복원·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옹관은 고대인이 시신을 묻으려고 특별 제작한 토기 관(棺)으로 영산강유역 고분 사회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문화요소로 평가받는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전 북

‘1930년대 시간여행’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6개월만에 11만명 방문 ‘인기’

역사·문화 직접 체험… 관람객들 발길 이어져

“193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개관 6개월 만에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문을 연 박물관에 4월 현재 총 11만1312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방문객은 개별관람객 75%·단체관람객 25%정도를 차지했고, 방문자 파악이 가능한 단체 관람객의 경우 외래방문객이 50%정도로 확인됐다. 이처럼 짧은 시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은 이유는 근대 역사박물관이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체험형 박물관’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930년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근대 생활사관은 일제강점기 실존했던 건물들을 재현하고, 내부에 전시와 체험·교육을 담아낸 찾는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 체험 학습지를 제작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또 박물관학교와 공예 체험교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박물관의 사회 교육 기능을 활발히 운영한 점이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근대역사박물관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진

‘기증자 특별기획전’과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문화 유산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특별전’ 등 기획전시를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소외됐던 관람객들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했다. 정준기 박물관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차별화된 전시행사를 기획해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사업비 182억원을 들여 군산 내항 장미동 인근에 연면적 4248㎡(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시대 달라도 새 세상 염원 같아”

정읍,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워크숍’ 열띤 토론

정읍시와 전북사학회(회장 이재운)는 지난 31일 정읍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개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생기 시장과 동학농민혁명 및 문화관광 관련 전문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정읍시가 추진한 선양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고려대 조광 명에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1894년 시대 상황과 현재 시대 상황이 다르지만, 당시 동학농민군이 추구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과 실천의지는 동일하다”며 “동학 농민혁명이 추구했던 반부패 사회개혁 운동과 반침략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양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전략(전주대 홍성덕 교수)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연구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관광진흥 전략(광주발전연구원 문창현 연구원) 등 주제논문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토의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단 신

전주 생태박물관, 자연사랑 체험교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초등학생들의 자연사랑과 에너지 절약 정신 고취를 위해 이달중에 4차례에 걸쳐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7일 수달모형 비누 만들기 ▲8일 나무 저금통 만들기 ▲14일 날아라 꼬리뽀꾸나비의 꿈 ▲21일 페

품을 활용한 물로켓 체험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주 시 홈페이지와 전주자연생태박물관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3-281-2831.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인구 증가… 한달새 1751명 늘어

군산시 인구가 지난달 대비 1751명 늘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27만6538명이었던 주민등록상 인구가 한달 사이에 1751명이 증가 해 3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14만1474명, 여자 13만 6815명으로 총 27만 8289명으로

집계됐다. 군산 인구는 지난 2008년 이후 해마다 3000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기업 유치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서민층 대상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

정읍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스사고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사고 위험을 줄이는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후진국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후 969가구를 선정해 이달부터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 청소년과 소통 ‘지평선 파수꾼’ 위촉

김제시는 청소년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최근 2012년도 2기 ‘지평선 파수꾼’ 위촉식을 갖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평선 파수꾼’은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청소년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기 지평선파수꾼은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장, 복숭아농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난 2일 금지면 입암리 시설복숭아 농장을 찾아 복숭아 연합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원시는 현장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농업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제2의 인생 ‘귀농·귀촌’ 도와드립니다”

고창군 TF팀 본격 가동

고창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담부서인 ‘귀농·귀촌 TF팀’을 본격 가동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창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총 494세대 1298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141명·30대 114명·50대 105명·60대 52명·20대 51명·70대 31명 순으로 30대부터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TF팀은 준비된 맞춤형 시스템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도우미’, ‘읍·면장과 대화의 날’, ‘귀농귀촌 선도농가’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상담소는 기술지도 및 종합안내자 역할, 귀농·귀촌협의회는 귀

농 선도농가 소개 및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부동산벨크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4월부터 각 읍·면에서 매매 및 임대 가능한 주택과 토지조사 작업도 진행된다. 또한 매월 5일은 ‘읍·면장과 귀농·귀촌인 대화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기존 귀농자 중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물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농가를 선정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강수 군수는 “배이비블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며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고창을 선택할 수 있도록 TF팀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